

‘진짜 나’ 만나 ‘진짜 대화’ 하라



성수 스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먹고 살았어. 그리고 나서 원효대사 토굴터에서 십년을 살았는데 쇠비름을 베어서 먹고 깔고 잤으며, 그때도 삼 년 동안은 풀잎만 먹었는데 건강에 아무 이상 없었어. 마을에서는 마음의 병이 들면 절로 수양하러 오는데, 스님이 병원에 간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기고 부끄러워서 못가야 해. 부끄러워서 안 가다보면 심글방글 째깍하게 살게 되고 그것이 활불(活佛)이지.”

성수 스님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보살을 잘 쓰고 자성 삼보를 잘 관리하면 보살이 된다면서 면대 가서 찾지 말라고 일러준다.

“부처님오신날”이라고 야단법석을 떠는 데 다 좋은 일이지. 형식적 축하보다는 진심으로 봉축해야지. 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데 미한 중생이 밝은 지혜는 외면한 채 어두운 물질에만 묶여 있으니 답답해.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노력하며 살겠다는 포부를 부처님 앞에서 기원하면 좋은 일이지. 오늘부터라도 부처님의 본을 받아 실천 수행하여 오늘이 바로 자신에게 ‘제 2의 탄생일’이 되도록 해야지.”

1975년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성수 스님의 역할이 컸다. 서울시장인 김현욱씨와 불자국회의원들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수차례 건의 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시민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윤지가 트럭 3대에 실어야 할 정도였단다. 그때가 성수 스님 마흔 한 살 때라 한다.

“공휴일로 지정된 그해 부처님오신날을 크게 벌였다. 서울시장이 행사비로 쓰라고 이십만 원을 내놓았는데는 100마지기 값이었어. 삼립식품공장에 보름달이 뭔가 하는 빵 3만 개를 주문하여, 만개는 조계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서울 시내 111개 양로원에 나누어주었지. 그날 하루 종일 서울에서 빵을 나누어주었는데 서울시가 들춰버릴 정도로 큰 잔치였어.”

성수 스님은 조계사 주지 할 때 ‘종교의 장벽을 트자’고 제안해서 종교협의회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종교협의회를 갖기 전에 신부, 목사, 수녀 오십여 명을 조계사로 초대해 했어. 내

성수 스님은 1944년 양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48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 1967년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역임. 1978년 세계불교지도자 대회 일본주최 한국 대표로 참가.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표충사 등 주지역임. 1981년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조계종 전계대화상 역임. 지금은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이며, 법수선원 · 황대선원 · 해동선원의 조실이다. 저서로는 <선문활요> <불문보감> <선행문> <정행문> 등 다수 있다.

“부처님은 확실히 모르고 크게 몰랐기에 성불한 것
우리는 ‘가섭의 미소’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참 불자”

가 초대를 했으니 딱 나가서 ‘내가 열아홉 살에 중이 됐는데 내 부모보다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중이 됐다.’고 했더니 그들 표정이 ‘저거 봐라. 부처 자랑부터 늘어놓는 다’고 쓰여져 있어. 45년 동안 그렇게 좋아하며 믿고 살아왔는데, 오늘에 와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부처한테 몽땅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야. 부처님은 속세에서 네 가지 큰 죄를 지은 분이라고 하니 내 말을 백프로 믿는 눈치네. 그들에게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善惡果)를 따 먹어서 천당과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선악과 먹기 전에는 거기가 어디냐?’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땅에 탁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나처럼 속는 놈이 된다면서 내 속았던 것까지 보태가지고 그들한테 폭떨어 써워 버린거야.”

부처님이 왜 속세에서 네 가지 큰 죄를 지은 분인지 궁금했다.

“부처님 육을 하면 부처님이 한 방 치시겠지만, 부처님 인격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아랑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 네 가지 죄란 첫째는 국사를 돌보지 않고 출가했으니 부왕의 명을 거부한 역적죄요, 둘째는 부모의 뜻을 거역했으니 천추만대의 불효죄요, 셋째는 결혼한 젊은 부인을 버린 배신죄, 넷째 라후라를 낳고도 기르지 않고 자식 버린 죄이지. 보통사람으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네 가지 죄를 짓고 성을 넘어 아반도주를 했으나 삼천 년이 지나도록 부처님을 성인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었어. 네 가지 죄를 지어도 삼천 년 동안이나 존경받는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부처님은 사문유관(四門遊觀)을 통해 사람들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어야

하나 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어. 안 죽는 법을 알기 위해서 육년이나 찾아다녔으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가 연구했지. 그렇게 하여 좌부동하고 앉았는데 삼시간에 육년의 세월이 또 지나간 것이지. 부처님은 확실히 모르고 크게 몰랐기 때문에 아주 크게 깨달을 수 있었어. 그러니 법당에서 절한 자락을 하더라도 부처님 뜻을 알고 해야지. 물어보고, 알고 살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납죽납죽 절만 하는 것을 보면 장관이야. 모르면 묻기라도 해야 하는데 묻지도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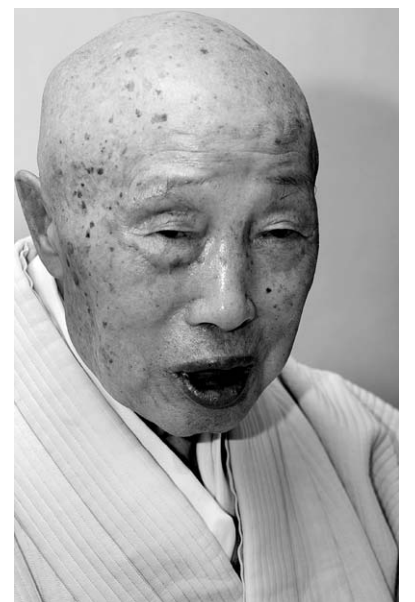
모르면서 묻지도 않는다는 말미 끝에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꽃 한송이를 들고 있으니 가섭존자만이 미소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미소인지 생각해 보았느냐?”고 한다.

“선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염화시중(拈花示衆)때 가섭의 웃음이 미소(微笑)인지 비소(非笑, 비난하는 웃음)인지 흑백을 가릴 줄 알아야만 해. 그래야 선객이라 할 수 있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남이 뱉어놓은 말만 무작정 따라가니 어느 세월에도 자신과 상면(相面)하겠느냐면서 격정의 눈초리로 바라보신다.

“깃타르타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떼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가?” 하고 묻는다. 연이어지는 스님의 기습질문이다. 성수 스님 앞에서는 뻔한 답을 하기보다는 묵묵부답이 차라리 나은 일이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제일 귀하다는 뜻이야. 자아발견을 좀 하고 살자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모르면 물속에 서는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어. 밥 잘하는 사람은 밥술과



산벚꽃이 한줄기 바람에 눈처럼 하얗게 하늘을 수놓던 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던 날 법수선원에서 성수 스님을 뵈었다. 서울 세곡동에 위치한 법수선원은 시민선방이 있는 보림도량으로 성수 스님이 1973년에 개원한 인연 깊은 곳이다. 성수 스님은 십 여년동안 법수선원에 주석하여 도심의 사람들에게 스님 특유의 방식으로 법과 선을 널리 펴고, 이곳에서 발심하여 출가한 이가 여러 명이라 한다.

올해로 세수 팔십일곱이신 성수 스님께 건강을 여쭙었더니 “한 계절이 들어오면 나날 때도 차고 더운 기운이 서로 치성을 부리는 것처럼 사람도 그 계절에 따라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라고 하신다. 어

제 미지근한 물에 목욕했더니 몸에 털이 났는데 병원 같 일은 아니란다. 구십 평생을 살면서 아직 병원 들고나는 일은 없으니 ‘시주밥 축내지 않고 도 닭은 것 아니냐’면서 웃으신다.

건강 비결을 물었더니 “불자들도 아침 3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등을 땅에 안 붙이고 노력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몸은 빛이 나니 병원 같일이 없을 거라.”고 한다. 몇 십년동안 한결같이 한 끼에 다섯 손가락의 찰밥과 맵고 짜지 않은 찬을 드신다고 하니 소식(小食)이 그 비결인 것 같다.

“많이 먹고 많이 자면 병 안들 사람이 없어. 현성산에서 공부할 때 일 년 동안 뽕 잎 · 감잎 · 솔잎 · 취잎 · 댕나무잎을 뜯어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화계사

SAMGAKSAN HWAGYESA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회 주 송원 설정

주 지 수경 정진 대중

신도회장 호법행 사부대중일동

사시예불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11시
거사회 108 참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국제선원 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4시 (내,외국인)
수선회 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어린이/학생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11시
청년회 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선우회 철야정진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 새벽 3시
철야삼천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9시 ~ 새벽 4시
합창단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1불자 1자비 실천” 운동 자비보시기금회 지원단체

결사아동 급식지원	독거노인 지원
생문동 노인복지센터	국립재활원 / 의료원
리오스 회계초등학교	이주노동자 지원
군 법당 법회 지원	국제선원 / 도제양성

신도교육 / 불교대학 사무처 ☎ 02-997-6469

기본교육과정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5시
불교대학	주간 1,2학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4시 주말 1,2학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7시
불교대학원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3시
교양과정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삼각山 華溪寺

※ 자비보시기금회 : 국민은행 353-25-0004-961 (예금주: 화계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www.hwagyesa.org ☎ 02)902-2663 전승 02)990-1885

www.dosunsa.or.kr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Lotus Lantern Festival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더없이 좋은 날, 기쁨의 날, 생명의 날에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새기며
지혜와 자비의 연등을 밝힙시다.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 / 전화 : (02)993-3161-3